

월요광장

위기만은 아니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요즘 우리 사회 최고의 관심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다. 연일 마스크를 통해 확진 환자 수와 사망자 수, 환자들의 동선 등이 발표되고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도 국민에게는 관심 밖인 것이다.

모든 이슈를 바이러스가 다 삼킨 것 못하다.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외출이나 만남을 꺼려해 사회 경제 분야에서도 타격이 커져 가고 있다.

광주시에서도 '코로나19 대응 광주시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사회 감염 지속, 환자 급증 등의 상황에 대비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감염병 확산 차단에 힘과 지혜를 모으고 만일의 사태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코로나 사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종식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기고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 짐작된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 진 인생의 기본값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힘들어 할 때 혜성처럼 은인이 나타나 도와주기도 한다. 이는 행운아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특별한 존재라서?

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다.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이를 지켜본 여신 아프로디테

가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감동하여 여인상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다는 신화에서 유래한다. 즉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절히 원하고 그 마음을 다해 행동으로 옮길 때 은인이 나타난다. 맘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고민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던져 준다. 즉 온 마음을 다하면 세상은 도와주려는 사람이 넘쳐 난다란 의미일 것이다.

광주시에서 대구의 경증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달빛동맹 등의 이름으로 뉴스에도 많이 나왔다. 큰 힘은 아니지만 작은 힘을 보태고 마음이 전달된다면 작은 힘이 큰 힘이 되고 결국 모두가 원하는 지금의 상황이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 거창하게 말한 것 같다.

마스크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관광 여행, 교육, 금융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등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번엔 내수 진작 패키지를 내놓는 등 여러 부양책을 내놓았다. 지금의 위기는 충격적일 것이다. 극복될 것이고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도시적 측면에서는 더욱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이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스페인 지진과 시카고 대화재를 통해 도시가 새롭게 변하고 도시 경쟁력을 갖게 된 사례도 많다. 광주시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시작한 지하철 공사, 잡음은 있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꼭 진행해야 하는 민간공원 특례법에 의한 공원 사업, 기존과 신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및 SOC사업 등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스페인 여행에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남긴 비교하기 힘든 독창적인 건축의 세계를 보았다. 거기서 부러웠던 것은 천재 건축가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가우디의 건축 세계에 물리적 정신적으로 한없는 믿음과 신뢰를 보내 가우디가 가진 건축을 예술로 꽃피울 수 있게 도운 구엘 백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러웠다. 오랜 시간 동안 재정적으로 도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스페인을 관광대국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한 국가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만큼 정말 대단한 예술품을 만든 것은 구엘의 탁월한 선택에서 출발하였다. 우리에게 구엘은 나타날 수 있을까? 더 나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社說

마스크 더 절실한 곳에 양보하는 미덕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마스크 구매를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제한하는 5부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공급 부족에 따라 사실상 배급제로 전환한 것인데, '마스크 대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딱 하루만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이다.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년, 화요일에는 2·7년, 수요일에는 3·8년, 목요일에는 4·9년,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살 수 있다. 다만 평일에 구매하지 못했을 경우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모두 구입이 가능하다. 1인당 구매 한도도 일요일에 두 대로 한정되며 판매 가격은 1500원이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논란을 빚은 대리 구매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에 한정해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5부제를 시행한다 해도 당장 약국 앞 행렬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1100만 장인데 정부는 이 가운데 80%를 공적 물량으로 공급하고 있어 1인당 1매씩 구매하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국민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개정된 마스크 사용 지침에 따르면 혼합하지 않은 아외나 가정 내 또는 개별 공간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감염 위험이 낮은 곳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한다. 특히 이상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은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마스크가 의료진이나 노약자 등 더욱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때다.

잇단 경선 불복 민주당 허술한 관리 탓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광주·전남 지역 경선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구에서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인 '원팀'(One Team) 구성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후보 간 고소·고발도 계속되면서 향후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이석형 후보가 불법 경선을 벌였다"면서 이용빈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다. 북구를 선거구에서도 이형석 후보에게 패한 진진숙 후보가 '신천지 교회 방문' 허위사실 유포로 유탄을 맞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선의 최대 이변으로 꼽히는 광주 동남갑의 최우 최영호 후보가 공천장을 따낸 윤영덕 후보 측 관계자 등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하고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박시중 후보에게 패배한 민형배 후보도 박 후보가 과다

조회된 권리당원 명부로 불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이밖에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경선에서 김승남 예비후보에게 패한 한명진 예비후보도 김 후보가 '불공정 경선'을 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처럼 경선 불복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패한 예비후보들이 '아름다운 승복'을 한 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경쟁자를 돕겠다고 나서는 '원팀'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높은 지지를 탓에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밀바탕에 깔려 있어 과열된 선거 운동 후유증이 나타나ն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들의 불법·탈법 행위가 너무 느슨하게 대처한 민주당 지도부의 허술한 경선 관리에 대한 책임도 거론되는 만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경선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김용하 광주시 문화관건립추진위원 전 광주시인협회 회장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극복하자

일대 역사적 행사가 도래하고 있다. 바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이다. 우여곡절 끝에 개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첫 시행대에 오르고,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등 달라진 것이 많다. 외교적으로는 북미 대화의 교착에 따른 우리의 북한 정책 등이 맞물려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나라의 장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선거가 코로나19에 밀려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총선은 이제 불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산적한 현안과 함께 선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여야 각 정당에서 공천 작업을 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승자와 패자의 애환이 보도되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당내 경선에 응모하거나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정도면 자신이 국민의 대표로 내세울 만한 인품이나 철학, 경륜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자 하는 자질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사람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르

고 검증을 통해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 선거이다. 또한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을 잡아 집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각 당도 정당 투표를 통해 따로 선택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선출하지만 지역의 대표성보다는 국가의 대표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사행작을 통해 개인이나 정당의 이미지에 훼손을 가져 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공은 국민에게 넘어오고 있다. 각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들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에 실패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다.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지역적 당파와 지연, 학연 등에 얽매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후보자들의 온갖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지난 20대 국회의원 무능력과 비생산적인 모습에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았으며, 개인의 권력욕과 당리당략 만을 위해 일당 표를 얻고 보자는 심리로 경쟁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혼란과 경제 침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시기에 치러진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고, 공정한 선거로 참된 애국적 인사가 선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당에서 내세운 이념과 정책, 공약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국민복의 바탕에서 시작되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역사적 주체성을 갖추고, 자율과 합리성을 발휘하여, 공정한 투표를 통해,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국가존망은 필부유책(國家存亡必夫有責)'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이 깨어나 나라가 산다.

기고

양극화의 갈등

견하는 사람이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나'가 살고 있다. 하나는 선을 원하는 나요,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는 나다. 그러나 대부분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러한 아픔을 피를 토하듯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라."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다.

이 자기 분열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의 부르짖음과 내적 투쟁으로 피나는 바울의 모습은 신앙인의 진실이다. 이처럼 절한 비참, 이 심각한 고민, 이 적나라한 인간 정신에서 우리는 신앙의 세계로 비약하는 바울 사도의 숭고한 인간상을 발견하고 그 진실에 머리를 숙인다.

가장 깊은 갈등은 내면적 갈등이며, 피나는 절쟁터는 자아 밖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명한 한 폭의 그림이다. 참된 인간 해방, 인간의 구원은 육체의 소욕에서 영혼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 세계는 끊임없이 갈등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고통은 인간의 생존에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인데 밖에서 오는 것과 안에

서 일어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모든 나라 고대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영계에도 선한 영과 악령의 실재를, 선한 신과 악귀, 천사와 마귀의 존재의 대립 투쟁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자연계에도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불과 물, 냉과 열, 폭풍과 평온, 번개와 천둥을 일으키는 음과 양의 근본적 갈등이 있다고 보았다.

중국 사상은 음과 양으로 우주의 원리를 삼고 있다. 양은 긍정적인 원리며 음은 부정적 원리로 생과 사, 남성과 여성, 동과 정 등 이러한 우주 자체에 양성이 있고 이 양성은 인간 속에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거룩함과 속됨 등으로 재생되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로 남과 북, 동과 서로 갈라져 사상과 체제, 질서와 생활 전반의 갈등이 심각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양극화 현상의 종횡이 서 있는 것 같다.

정치 분야에서는 권력층과 국민 사이의 갈등, 여야의 극한 대립이 극심하고 경제 분야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와 갈등,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격차에서 오는

갈등이 크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소수 자본 계급의 질적 비대와 대중의 양적 비대의 대립, 근대화·도시화가 가져온 신용 계급과 서민 계급의 대립이 적지 않다.

가장 문제는 종교 문제다. 형식적 질서와 감정적 무질서, 즉 호국 종교(어용 종교)와 예언자 종교의 갈등, 보수주의와 혁신주의의 갈등, 개인 경건주의와 사회 참여, 세속주의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양극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인간 세계의 분열과 대립에서 필연적 결과로 오는 고통이고 그 갈등과 고통은 필경 인간 자체 안에 있는 이중성 때문이다.

바울처럼 인간을 바로 이해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비천을 몸으로 알아야 참된 인간 해방과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앙의 깊이는 고뇌의 깊이와 정비례한다. 인생의 길이는 갈등의 길이와 정비례한다. 사회의 은총은 회개의 질서와 정비례한다.

깊은 실존의 심연에서 갈등 속에 고민하는 사람이 참 평화, 화해, 소통, 이해, 일치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증거할 수 있다.

無等鼓

신정국가(神政國家)를 표방하는 중동의 이란, 이라크, 사우디 등지에서 무슬림(신에게 항복한 사람)들은 신의 뜻에 따라 훌륭하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다섯 가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른바 '이슬람의 다섯 기둥'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샤하다'. "신 이외의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다"라는 신앙 고백을 암송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살라트'. 예언자의 탄생지인 메카를 향해 하루 다섯 번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메카'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메카를 찾아 카바 신전에 예배하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삼을 정도로 '하지'를 중요시한다.

그런데 지난 4일 사우디 당국이 자국민의 메카 순례를 전격 금지시켰다. 코로나19가 중동 지역에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네티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카의 대사원 정중동 카바 신전 주변이 텅 빈 모습을 사진에 담아 퍼 나르고 있다.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란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금요일예배를 취소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신의 뜻에 따른 의무' 조차 중단한 이슬람 국가들의 노력이 대규모 지역 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강행하려는 우리나라 일부 교회의 모습과 겹쳐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교인의 안전과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일부 교회의 처신이 '마스크를 사러 약국 앞에 진을 친' 국민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걱정스럽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담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법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